

清代 滿漢合璧 四書에 관한 고찰

— 국내 소장 4종을 중심으로

최다정 *

-
1. 서론
 2. 清代 滿漢合璧 四書
 - 1) 滿漢合璧 四書의 제작 배경
 - 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3.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상세한 서지사항·유입 경위 등을 고찰했다. 『청실록(淸實錄)』을 살핀 결과, 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한 정황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간행된 만문 사서 중 국내로 유입된 4종은 저마다의 특징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김정희(金正喜)의 호(號)인 '시암(詩菴)'이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고, 김정희와 교유가 깊었던 옹방강(翁方綱)의 환송(漢宋) 겸채(兼采)론이 드러나는 문구가 쓰여 있어 추사의 흔적을 확인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1923년

*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 재학 / E-mail: choi_dajeong@naver.com

이후 입수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 『사서집주(四書集註)』는 1838년(道光18) 북경 유리창의 병울당(炳蔚堂)에서 간행해 한 부(部)당 문은(紋銀) 4냥에 판매했던 정황이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는 만주족의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된 용복사(隆福寺) 거리 서적 시장의 '취진당(聚珍堂)'에서 간행된 것인데, 19세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서 번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판본이다.

주제어: 滿漢合璧, 御製繙譯四書, 滿洲語, 金正喜, 炳蔚堂, 聚珍堂

1. 서론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 4종을 대상으로 그 상세한 서지사항과 유입 경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을 설립한 만주족은, 만주족·몽골족·한족으로 구성된 다원적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한족이 일궈둔 중원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포용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청 황실은 건국 초부터 한어의 학습을 목표로 한적(漢籍)을 만주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했다. 문학·역사·군사 등 여러 장르의 주요 작품 번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경서(經書)는 번역의 대상이 된 대표 한적에 해당한다.

국내 학계의 만한합벽 사서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수준이다. 우선, 김동소(2011)는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만문 사서의 존재를 언급했다.¹⁾ 또한 김주원(2012)은 서울대학교 소장 만주

1) 김동소,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에 대하여」,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1)』, 지식과 교양, 2011.

어·몽골어 문헌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만한합벽 사서집주』의 존재와 간단한 서지 사항을 서술했다.²⁾ 이 밖에 만문 『시경(詩經)』의 번역 양상을 밝힌 김주원·정계문·고동호(2009)의 연구와, 만문 『서경(書經)』 「홍범(洪範)」 편을 역주한 송강호(2017)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중국 학계에서는 季永海(2009)가 청대 한적을 만주어로 번역한 배경을 밝히고, 번역의 대상이 된 사서삼경·역사·군사·문학 서적의 대표 작품 목록을 개괄적으로 기술했다.⁴⁾ 또한 王碩(2021)⁵⁾은 청대 유교 한적 만역의 배경과 특징, 영향 등을 아울러 살폈다. 개별 경서의 만역 본에 대한 연구로는, 王敵非(2011, 2012a)가 『논어』의 ‘何陋之有’를 만주어로 번역한 양상을 문법적으로 분석한 것과, 『좌전』의 만문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밝힌 논문이 있다.⁶⁾ 王敵非(2012b)·門議炜(2019)·金華(2021)·石文蘊(2022)는 『시경』의 만역 양상을 고찰했다.⁷⁾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아직까지 국내 소장 만역 사서의 상세한 서지 사항 및 그 가치를 밝힌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

2)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3) 김주원 외 2명, 「滿文 詩經의 翻譯 樣相 研究」, 『알타이학보』 19, 한국알타이학회, 2009.

송강호, 「만문 書經 「洪範」 역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81, 문헌과해석사, 2017.

4) 季永海, 「清代滿譯漢籍研究」, 『民族翻譯』 第3期, 2009. (2013년 한국고서연구회 발간 『고서연구』 31호에 해당 논문의 한국어 번역본 등재).

5) 王碩, 「清中叶以降儒學典籍滿譯研究」, 東北師範大學, 2021.

6) 王敵非, 「滿譯「何陋之有」相關詞語用法研究」, 『滿語研究』, 2011.

——, 「滿譯「左傳」詞語研究-以「鄭伯克段于鄆」爲例」, 『滿語研究』, 2012a.

7) 王敵非, 「民族文化在文學翻譯中的體現-以滿譯「詩經·關雎」爲例」, 『黑龍江民族叢刊』, 2012b.

門議炜, 「武英殿刻本滿譯『詩經』的語言特点研究」, 中央民族大學, 2019.

金華, 「以『詩經』爲例的滿譯漢籍文獻編目研究」, 『圖書館學刊』, 2021.

石文蘊, 「淺論『詩經』滿譯本中的疊詞翻譯策略」, 『民族翻譯』, 2022.

소장하고 있는 만한합벽 사서는 4종이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특히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친필로 작성한 표제와 문구가 쓰여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 3종의 『어제번역사서』는 사서의 경문(經文)만 만문(滿文)으로 번역해 한문과 함께 병기한 방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한 1838년(道光18) 간본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주석을 함께 만문으로 번역한 만한합벽본이다.

이상 4종의 만한합벽 사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먼저 청대 만한합벽 사서의 제작 배경을 살펴본 뒤 국내 소장본의 상세한 서지사항과 해당 판본이 지닌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시도해봄으로써 경서 연구의 새로운 한 방식과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가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2. 清代 滿漢合璧 四書

1) 清代 滿漢合璧 四書의 제작 배경

홍타이지(hongtaiji)가 자신은 '만주족의 한(han)이자 몽골족의 대칸(大汗)이며 한족의 성왕(聖王)'이라고 말하며 청국(淸國)을 선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청나라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한 다민족 국가였다.⁸⁾

8) 이훈(2018)은 청이 중국·몽골·티베트·위구르 지역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한 제국이었으며, 여러 강역과 민족을 단일한 체제로 지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청은 국어(國語)인 만주어뿐 아니라 한어·몽골어·티베트어 등의 언어를 통용하는 다중언어 정책을 펼쳤다.⁹⁾ 특히 관료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주문(滿洲文)과 더불어 한문(漢文)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었다. 국가에서 작성하는 문서도 대체로 만주문과 한문을 병기한 ‘만한합벽(滿漢合璧)’ 혹은 ‘만몽한합벽(滿蒙漢合璧)’¹⁰⁾의 형태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국가 차원에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하는 작업 역시 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소정잡록(嘯亭雜錄)』 卷一 「번서방(翻書房)」조〉

숭덕(崇德) 초, 문황제(文皇帝: 홍타이지)는 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고 정치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문성공(文成公) 달해(達海)에게 『국어(國語)』·『사서(四書)』·『삼국지(三國志)』 각 1부를 번역하도록 명하여서 조정의 원로들에게 하사하여 정사에 임하는 규범으로 삼았다. 도음을 정한 후에는 태화문 서곽(西廊) 아래에 ‘번서방(翻書房)’을 설치해, 팔기(八旗)에서 만주문을 거둬 암송할 자를 간택하여 등용하였는데 그 인원엔 한정을 두지 않았다.¹¹⁾

만주족 종실(宗室)인 애신각라초안(愛新覺羅昭棟, 1776~1830)이 쓴 필기 잡록 『소정잡록(嘯亭雜錄)』¹²⁾ 「번서방(翻書房)」 조에는, 청 건

즉, 한인에게는 명의 제도를, 기인에게는 팔기의 제도를, 몽골·티베트·위구르에도 다른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했다.(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282쪽 참조.)

9) 이은상,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이미지 제국』, 산지니, 2021, 15쪽 참조.

10) 만한합벽(滿漢合璧)·만몽한합벽(滿蒙漢合璧): 왼쪽에서부터 만주어-몽골어-한문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청의 황제들은 19세기 말까지 세 언어에 능숙했고 귀족층 역시 그럴 것을 요구받았다.(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174쪽 참조.)

11) 『嘯亭雜錄』 卷1 「翻書房」, “崇德初, 文皇帝患國人不知漢字, 罔知治體, 乃命達文成公海翻譯『國語』、『四書』及『三國志』各一部, 頒賜耆舊, 以為臨政規範. 及定鼎後, 設翻書房於太和門西廊下, 揀擇旗員申請習清文者充之, 無定員.”

12) 『소정잡록(嘯亭雜錄)』: 청대 애신각라초안(愛新覺羅昭棟, 1776~1830)이 편찬한

국 초 태종(太宗)이 문성공(文成公) 달해(達海)¹³⁾에게 『사서(四書)』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명한 내용이 보인다. 한문을 잘 모르는 관료들에게 경서를 통해 한문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였다. 청 황제들은 만주족이 한문에 무지하여 한인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으며, 만주족에게 만주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한문을 익히길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¹⁴⁾

또한 『소정잡록』의 기록을 통해 북경으로 도읍을 정한 후에는 북경 태화문(太和門) 서쪽 성곽 아래에 만문 번역만을 전담하는 기관인 번서방(翻書房)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32년 연경을 방문했던 조선 연행사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역시 오문(午門) 안의 각종 조방(朝房)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번서방을 언급한 바 있다.¹⁵⁾ 이처럼 경서를 비롯한 한적(漢籍)을 만문(滿文)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한 아문(衙門)인 번서방은 청 말기인 1911년까지 존속했다.¹⁶⁾

아울러 『청실록(淸實錄)』을 살펴보면, 강희(康熙) 연간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아가 팔기(八旗)의 한문 교육을 강조했던 점과 더불어 번역고시(翻譯考試)¹⁷⁾

필기잡록이다. 청 도광(道光) 초 이전의 정치·군사·경제·문화·전장제도(典章制度)·문무관료(文武官的)·사회 관습 등에 관한 귀중한 사료를 다량 보존한 서적이다. 작가는 자신의 체험과 견문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가치가 있다.

13) 달해(達海): 만주 정황기인(正黃旗人). 입관(入關) 전부터 활동한 저명한 번역가로 만한문(滿漢文)에 능통해 한어(漢語) 경전을 번역했다.(季永海(2009, 앞의 논문) 참조.)

14) 이훈(2018, 앞의 책) 274쪽 참조.

15) 金景善, 『燕轅直指』 卷3 「留館錄」, 1832年 12月 19日, “午門, 卽宮城正門, 或稱五鳳門, 兩簷三門. …… 門內左設嘉量, 右設日圭. 東西兩廡, 各二十四間, 稽察上諭內閣誥勅起居注繙書等房, 皆在於此. 其內卽大內太和門.”

16) 『淸史稿』 「本紀25 宣統皇帝本紀」 1911年 6月 3日, “甲子, 內閣上內閣屬官官制·法制院官制, 詔頒布之. 置內閣承宣廳, 制誥·敘官·統計·印鑄四局, 設閣丞·廳長·局長各官, 並置內閣法制院院使. 罷憲政編查館·吏部·中書科·稽察欽奉上諭事件處·批本處, 俱歸其事於內閣, 以繙書房改隸翰林院.”

를 치른 정황도 확인 가능하다.

[표1] 『청실록(淸實錄)』에 나타난 만문사서(滿文四書) 번역 관련 기록

순	출전	핵심 내용
1	『聖祖仁皇帝實錄』 1672年(康熙11)	翰林院 소속 福達禮가 『大學衍義』을 滿文으로 번역 완료한 뒤, 간행과 반포를 進모함.
2	『聖祖仁皇帝實錄』 1708年(康熙47)	1708년 당시 四書五經의 經文은 滿文으로 번역 완료된 사실을 밝히면서, 다른 경서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
3	『世宗憲皇帝實錄』 1724年(雍正2)	禮部에 소속된 번역 담당 관리를 滿文 번역 실력만으로 등용한다는 기록.
4	『世宗憲皇帝實錄』 1731年(雍正9)	蒙古八旗 출신을 理藩院 소속 관리로 등용함에 있어, 滿文『日講四書』의 漢文을 蒙文으로 번역하는 시험을 치렀음.
5	『高宗純皇帝實錄』 1738年(乾隆3)	繙譯鄉會試에서 『淸文四書』를 번역하는 문제 및 滿洲文 1편 창작 문제를 출제함.
6	『高宗純皇帝實錄』 1742年(乾隆7)	1738(乾隆3)에 시행됐던 繙譯鄉試를 이어받아, 『四書淸文』에서 1문제를 출제하고 또한 性理論을 滿洲語로 쓰는 문제의 출제를 제안하는 鄂爾泰의 奏文.
7	『高宗純皇帝實錄』 1751年(乾隆16)	군기대신 등이 (滿文)『繙譯五經四書』를 進모함.
8	『宣宗成皇帝實錄』 1843年(道光23)	1843年(道光23)에 滿文·蒙文을 漢文으로 번역하는 (駐防)八旗의 考試에 대한 조목. 이때의 繙譯鄉試 역시 만주어 四書를 번역하고 論하는 방식으로 치름.
9	『文宗顯皇帝實錄』 1856年(咸豐6)	滿漢合璧『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이 완성됐음. 특히, 강희11년 福達禮가 四書를 滿文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滿洲新語 및 對音切字가 이때 重刊本에는 반영됐다는 사실을 강조함.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한 경서(經書)가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672년(강희11)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복달예(福達禮)가 『대학

17) 번역고시(繙譯考試): 王碩(2021, 앞의 논문)은 청대에 치러진 각종 번역 시험은 기인(旗人)이 벼슬길에 오르는 중요한 경로였으며, 이때 번역 시험 문제는 경서의 만역본을 대상으로 출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연의(大學衍義)』를 만문으로 번역해 황제에게 올렸다는 내용이다.¹⁸⁾ 1708년(강희47) 강희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궁구한다면서 이때 독서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바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희제는 당시 사서오경은 만문으로 번역 완료됐으나 강목(綱目)과 강의(講義)류의 서적들은 번역이 안 된 상황이라며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⁹⁾

1731년(옹정9)에는 몽골팔기(蒙古八旗) 출신을 이번원(理藩院) 소속 관리로 등용함에 있어, 『청자일강사서(淸字日講四書)』의 한 대목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방식의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²⁰⁾ 이어 1738년(건륭3) 번역향시(繙譯鄉試)에서 『청문사서(淸文四書)』의 번역 문제 및 만주어로 한 편의 글을 창작하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1742년(건륭7)에 악이태(鄂爾泰, 1680~1745)²²⁾가 올린 장주문(章奏文)을 보면, 이때 역시 『청문사서』에서 1문제를 출제하고 ‘성리

18) 『聖祖仁皇帝實錄』 1672年 7月 15日, “翰林院掌院學士傅達禮等, 進呈翻譯『大學衍義』, 并請卽付劄刷, 廣行頒布. 得旨, 書留覽, 餘依議.”

19) 『聖祖仁皇帝實錄』 1708年 6月 22日, “惟以讀書窮理盡吾之志, 凡五經四書, 已經繙譯之外, 如綱目講義等有關於治道者, 靡不譯盡. 近老成耆舊, 漸就凋謝因而微文奧旨, 久而弗彰承譌襲外習, 而不察字句偶有失落, 語音或有不正, 國書所關甚鉅, 政事文章皆由此出.”

20) 『世宗憲皇帝實錄』 1731年(雍正9) 4月 30日, “近見蒙古八旗分人, 能蒙古語言繙譯者甚少. 沿習日久則蒙古語言文字, 必漸至廢棄. 應照考試淸文繙譯例, 考試蒙古文繙譯, 取中生員舉人進士, 以備理藩院之用. … 其考試生員, 派蒙古提督學政一員, 於『淸字日講四書』內, 視漢文三百字爲准, 出題一道, 考試舉人進士, 派蒙古主考一員, 蒙古同考官二員, 仍以『淸字日講四書』一道爲首題, 再加淸字奏疏一道爲次題, 俱令其以蒙古文繙譯. 至生員舉人進士額數, 著考試官選擇應取試卷. 臨期奏請.”

21) 『高宗純皇帝實錄』 1738年(乾隆3) 4月 27日, “禮部議准, 河南道御史赫慶條奏, 繙譯鄉會試屆期, 所有同考官四員, 請諭各部院堂官, 及各館總裁, 令於司官纂修官內, 擇明通之員, 送部開列. 并請欽命繙譯一題外, 再於『淸文四書』內, 欽命一題, 令士子作淸文一篇.”

22) 악이태(鄂爾泰): 『世宗憲皇帝實錄』의 修纂官 명단에는 ‘監修總裁’로 ‘光祿大夫經筵講官太保議政大臣保和殿大學士兼兵部尚書總理兵部事三等伯加十五級臣鄂爾泰’가 기술되어 있다. 악이태가 옹정제 재위 당시 실록의 감수총재로 임명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론(性理論)을 주제로 만주문을 창작하는 방식의 번역고서를 제안하고 있다.²³⁾ 도광 연간인 1843년(도광23)에 이르러서도 팔기(八旗)의 고시가 만·몽문(滿·蒙文) 사서를 한문(漢文)으로 번역하고 논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기록이 나타난다.²⁴⁾

완성된 형태의 번역사서를 황제에게 올린 기록은, 1751년(건륭16)과 1856년(咸豐6)에 보인다. 이를 통해 1751년에는 만문으로 번역한 『번역오경사서(繙譯五經四書)』가 완성됐고²⁵⁾, 1856년에는 만한합벽(滿漢合璧) 『흠정번역사서·오경·통감(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56년의 만한합벽 사서·오경·통감의 경우 강희 연간에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만주신어(滿洲新語) 및 대음절자(對音切字)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만주어와 한문 실력을 겸비한 번역

23) 『高宗純皇帝實錄』 1742年(乾隆7) 7月 7日, “大學士鄂爾泰等議奏, 查繙譯鄉會試, 於雍正元年議定, 雍正二年鄉試, 三年會試, 後經禮部以會試人少具奏, 奉旨六十名會試在案。嗣因乾隆三年, 因繙譯鄉試, 已閱六科, 有百餘人, 議准參議馬璘條奏, 於乾隆四年開科會試, 取中二十二人, 因人數甚少, 未經殿試, 俱賜進士出身, 今年八月, … 臣等公同酌議, 除繙譯鄉試, 仍照舊例辦理外, 其繙譯會試殿試, 皆掄才大典, 自當按期舉行, 上科因人數無多, 未經殿試, 今不拘定人數, 亦不必另定期場, 請嗣後繙譯會試, 即於會試天下貢士時, 於闈中另編字號, 一同考試, 分爲兩場, 頭場人衆, 不必入試, 於二場點進, 試『四書清文』一篇, 考經性理論清文一篇, 三場, 試繙譯一篇, … 一同殿試, 即令滿讀卷官閱看進呈。”

24) 『宣宗成皇帝實錄』 1843年(道光23) 8月 20日, “軍機大臣會同禮部議覆駐防考試繙譯章程二十條。… 一、各省繙譯鄉試, 准照文闈各就本省舉行。一、各省蒙古繙譯, 亦應照滿漢繙譯鄉試之例辦理。一、繙譯鄉試題目, 由禮部奏請, 欽命試以四書文清字論題一道, 滿洲蒙古繙譯題一道, 即由派出該省之文闈考官帶往, 親交監臨刊刻頒發。… 一、繙譯錄科, 於鄉試年五月內, 由該將軍等出題考試, 滿洲用漢字繙譯題一道, 蒙古用清字繙譯題一道。”

25) 『高宗純皇帝實錄』 1751年(乾隆16) 7月 2日, “又諭曰, 尙書孫嘉淦, 以所著『詩經補註』, 間日進覽, 於興觀群怨之旨, 頗有發明. 朕亦時折其中, 從此薈萃成編, 足備葩經一解. 孫嘉淦請開館纂修, 朕以爲無事更張, 現在軍機大臣等, 逐日有進呈『繙譯五經四書』.”

26) 『文宗顯皇帝實錄』 1856年(咸豐6) 9月 23日, “前據大學士文慶等, 進呈前任巴里坤領隊大臣三等侍衛孟保, 繙譯『大學衍義』一書. 當交鑲黃旗漢軍校刊, 並派侍郎穆蔭, 協

인재를 강희 연간부터 지속적으로 선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족의 문화를 아우르는 공부를 추구했던 당대의 지향점이 드러나는 바이다.

한편, 1755년 간행된 『어제번역사서』의 서문²⁷⁾을 보면, 건륭제는 재위 초기 대학사(大學士) 악이태(鄂爾泰)에게 명하여서, 청초부터 만문으로 번역해온 경서에 대해 그 오류를 바로잡고 거듭 정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건륭제가 ‘아주 작은 유감도 없어진 후에야 그만둘 것이다[無毫髮遺憾而後已]’, ‘학자들은 쉽게 만족하지 말라[學者慎毋以淺嘗自足]’ 등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당시 청조가 사서의 만문 번역에 얼마나 공력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한합벽 사서는 4종이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

同校閱。茲據文慶等奏稱、督同繙書房司員等、詳加校訂。並發交該旗印務章京。會同孟保、刊刻成書。朕覆加披閱。均係欽遵乾隆年間。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各按新語、詳加釐定。因思宋臣眞德秀此書。因大學條目。纂集經史。考證得失。於聖學治道。均有發明。康熙十一年間。我聖祖仁皇帝。特命翰林院掌院學士福達禮等。繙譯頒行。顧其時滿洲新語未備。引用經史。皆係舊語。對音切字。有未經繙譯成文者。又止清文單行。未及增註漢字。今既引用新語。又成滿漢合璧。開卷瞭然。洵足爲士子編摩之助。著將刊板。交武英殿刷印頒行。俾在京八旗。及各省駐防。同資講肄。用副朕稽古同文。精益求精至意。”

- 27) 「御製繙譯四書序」, “國朝肇立文書, 六經史籍次第繙譯, 四子之書首先刊布傳習。朕於御極之初, 命大學士鄂爾泰, 重加釐定, 凡其文義之異同, 意旨之淺深, 語氣之輕重, 稍有未協者, 皆令更正之。然抑揚虛實之間, 其別甚微。苟不能[按節揣稱, 求合於毫芒, 而盡祛其疑似], 於人心終有未慊然者。幾暇玩索, 覆檢舊編, 則文義意旨語氣之未能昭合者, 仍不免焉。乃親指授繙譯諸臣, 參考尋繹, 單詞集字, 昭晰周到, 無毫髮遺憾而後已。夫義蘊淵深, 名理無盡, 文字爲人所共知共見, 而一一歸於至當, 尚必待功力專勤, 至再至三而始得之, 可以知學問之道, 功愈加則業亦愈進。況夫體備於躬行, 發揮於事業, 苟非侷焉日有孳孳, 精益求精, 而欲底於有成難矣。學者慎毋以淺嘗自足, 而憚於有爲也哉!”

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다음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 3종의 『어제번역사서』는 사서(四書)의 경문(經文)만 만문(滿文)으로 번역해 한문과 함께 병기한 만한합벽 방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한 1838년(道光18) 간본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주석을 함께 만문으로 번역한 만한합벽본이다.

[표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분류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명	①『御製繙譯四書』	②『御製繙譯四書』	③『四書集註』	④『御製繙譯四書』
저자	• 乾隆帝 命編 • 鄂爾泰 釐定	• 乾隆帝 命編	• 未詳	• 乾隆帝 命編
판 사항	• 木板本(初刊)	• 木板本(初刊)	• 木板本(重刊)	• 木板本 (①의 重刊)
발행 사항	• 刊寫者未詳 • 乾隆20(1755)	• 刊寫者未詳 • 刊寫年未詳	• 琉璃廠 炳蔚堂 • 道光18(1838)	• 聚珍堂 • 光緒14(1888)
형태 사항	• 6卷6冊 • 四周雙邊 半郭 18.4×13.1cm, 無界, 上黑魚尾; 26.3×16.9cm	• 6冊 • 四周雙邊 半郭 18.4×18.0cm, 無界, 上下向黑魚尾; 23.0×15.5cm	• 14冊 • 四周雙邊 半郭 21.4×14.6cm, 無界, 花口, 上下向黑魚尾; 27.3×16.7cm	• 6冊 • 四周雙邊 半郭 無界, 上黑魚尾; 24.5×15.6cm
주기 사항	• 滿漢對譯本 • 廿四品詩卷藏 • 表題: 蒙文四書 • 序: 乾隆20(1755)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 滿漢對譯本 • 朝鮮總督府圖書 館藏書印 • 表題: 御製繙譯四書 • 序: 乾隆20(1755)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 滿漢對譯本 • 表題: 大學集註, 中庸集註, 論語集註, 孟子集註 • 1.大學 2.中庸 3-7.論語 8-14.孟子	• 滿漢對譯本 • 表題: 御製繙譯四書 • 序:乾隆20(1755)28)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①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6冊을 아울러 덮어싼 겹 표지가 따로 있고, 앞면에 ‘蒙文四書 6冊’이라는 표제(表題)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각 책의 표지에도 별도로 ‘大學 全’·‘中庸 全’·‘論語 乾’·‘論語 坤’·‘孟子 乾’·‘孟子 坤’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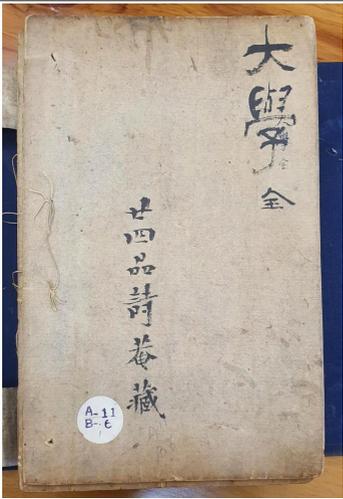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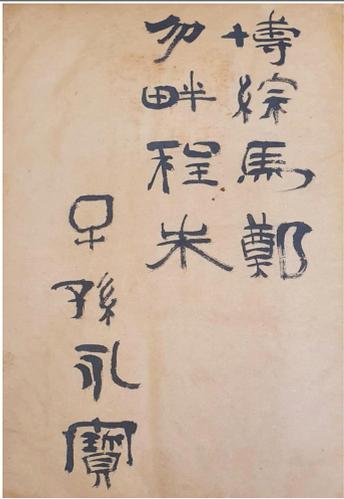
〔표3〕 『繙譯四書』 각 冊 표지의 冊名 서체

1冊	2冊	3冊	4冊	5冊	6冊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1冊인 ‘大學 全’의 표지에 써있는 ‘廿四品詩菴藏’이라는 기록과, 6冊인 ‘孟子 坤’ 마지막 면의 ‘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라는 기록이다.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서지사항에서는 乾隆24(1759)년에 서문이 작성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원본 확인 결과 乾隆20(1755)년 작성된 서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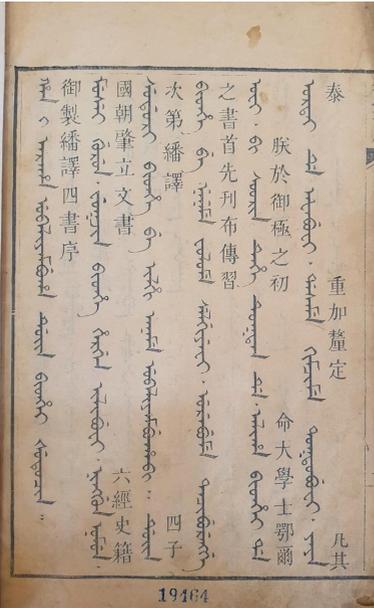
[표4] 『繙譯四書』 1冊 및 6冊

1冊 '大學 全' 표지	6冊 '孟子 坤' 마지막 면
	
<p>“廿四品詩菴藏”</p>	<p>“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p>

‘시암(詩菴)’은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호(號)이다. 또한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을 널리 종합하고, 정자와 주자를 배반하지 말라 [博綜馬鄭, 勿畔程朱.]’는 문구는 김정희와 깊은 교류를 맺었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추구한 한송(漢宋) 겸채(兼采)의 입장을 드러낸다.²⁹⁾ 이 문구뿐 아니라 각 책(冊)의 표지 서체도 모두 김정희의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대학교 소장 『번역사서(繙譯四書)』는 김정희가 소장하게 되면서 각 책의 표지에 책명을 쓰고 마지막 책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을 밝혀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29) 양원석(2018)은 옹방강이 견지했던 경학 연구 방법론을 ‘한송겸채(漢宋兼采)’로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 그의 경학 연구에 적용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옹방강의 시경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양원석, 「翁方綱의 詩經學-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표5]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卷首面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권수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수면
	
<p>「御製繙譯四書序」 ※ 표지 뒷면에 高麗大學校圖書館藏書印.</p>	<p>「御製繙譯四書序」 ※ 권수면에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印.</p>

겉표지의 ‘몽문사서(蒙文四書)’라는 표제(表題)와 달리 이 책은 권수면(卷首面)의 서문(序文)에서 알 수 있듯 한문을 만주문으로 번역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이다. 김정희가 책을 청으로부터 입수한 이후, 혹은 후손이 김정희의 장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몽문사서’라는 표제를 잘못 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만주어와 몽골어에 밝지 못했고, 문자 형태가 비슷한 두 문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각 책의 앞표지 혹은 뒤표지

안쪽에 ‘高麗大學校圖書館’ 장서인이 찍혀 있다. 보성전문학교에서 출발한 고려대학교는 1946년에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정하였고 도서관 역시 ‘고려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개칭했다. 즉 장서인의 단서를 통해 이 판본은 1946년 이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御製繙譯四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그 체제가 동일하다. 다만 판식(板式)을 비교해보았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광곽(匡郭)이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달리 중간중간 끊겨 남아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 표지의 안쪽 면에서는 ‘朝鮮總督府圖書館 圖書登錄番號 古19804 昭和16.6.5’라는 인기(印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수면(卷首面)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前身)이다. 『어제번역사서』의 청구기호 古1-30-18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고서 분류 체계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여지숙·오동근(2004)³⁰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조선을 비롯한 대륙 침략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하나로 모아두려는 목적으로 만주·몽골·시베리아 관련 자료를 ‘조선문(朝鮮門)’이라는 체계로 아울러 분류했다.

『어제번역사서』에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운영 시기인 1923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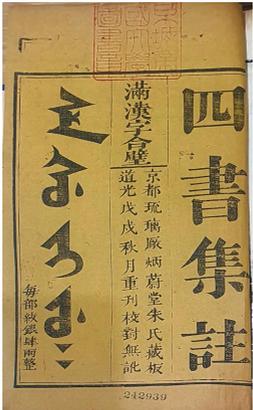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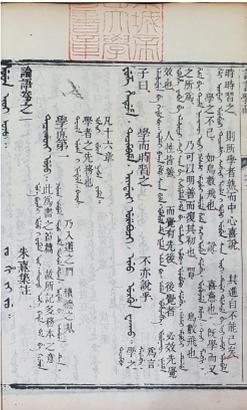
30) 여지숙·오동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관 이후 입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滿漢合璧 『四書集註』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사서집주』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오른쪽에 한문을 병기했다. 총 14책으로, 『대학집주(大學集註)』 1권 1책, 『중용집주(中庸集註)』 1권 1책, 『논어집주(論語集註)』 10권 5책, 『맹자집주(孟子集註)』 7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의 표지에는 따로 제침(題簽)을 붙여 책명을 만주어와 한자로 표기해두었다.

[표6] 『四書集註』의 형식

제침(題簽)	편제면(篇題面)	권수면(卷首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集註 90 1300 3 30 • 中庸集註 100 1000 3 30 • 論語集註 30 30 3 30 • 孟子集註 30 30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四書集註 30 30 3 30 • 滿漢字合璧 • 每部紋銀肆兩整 • 道光戊戌秋月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兩蔚堂朱氏藏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어 經文 - 한자 經文 - 만주어 주희 註 - 한자 주희 註의 순서로 병기했다.

첫 책인 『대학집주』의 표지 안쪽 편제면(篇題面)에는 ‘도광(道光) 무술년(1838) 가을, 중간(重刊)하고 교정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북경 유리창 병울당(炳蔚堂)의 주씨(朱氏) 장관.(道光戊戌秋月, 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炳蔚堂, 朱氏藏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혀 있다. 또한 ‘매부는 문은(紋銀) 4냥을 금액으로 정한다(每部紋銀肆兩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때 ‘문은’이란 곧 청에서 화폐로 쓰이던 은으로 병울당에서 이 책에 4냥의 금액을 매겨 판매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책의 권수면(卷首面)에는 ‘경성제국대학도서장(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김주원(2012)³¹⁾은 현 서울대학교 소장 경성제국대학의 장서 중 만주어 문헌을 정리하면서, 만한합벽 『사서집주』는 1941년 수집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때 또한 『사서집주』를 비롯한 여러 만주어 문헌이 1941년에 유입된 것은, 1932년 만주국의 건립과 중일전쟁 과정에 일본인이 중국 현지에서 책을 수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리창의 병울당이 조선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임백연(任百淵, 1802~1866)이 1837년(헌종3)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 수행원으로 북경에 갔을 때이다. 『경오유연일록(鏡語遊燕日錄)』 1837년 1월 22일 기사에는 임백연이 병울당에 가서 의자에 앉아 청의 학자와 필담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³²⁾ 서울대 소장본 만한합벽 『사서집주』 역시 1838년 병울당에서 중간(重刊)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병울당은 19세기 초 북경 유리창에서 운영된 서점임을 짐작 가능하다.

31)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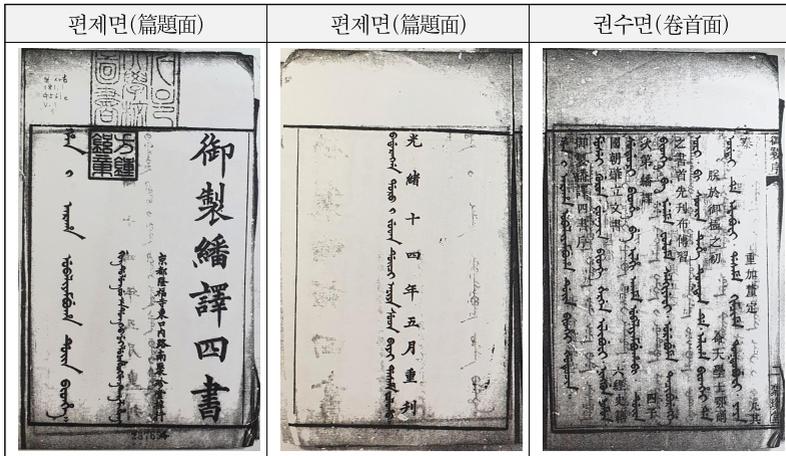
32) 任百淵, 『鏡語遊燕日錄』 1837年 1月 22日, “逢朱生善邦, 相揖於道, 要與同往里所, 廠號炳蔚堂, 相與連椅, 筆談半晌.”

④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御製繙譯四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1755년(건륭20) 간행되었던 『어제번역사서』를 1888년(광서14) 북경 취진당(聚珍堂)에서 중간(重刊)한 것이다.

만주족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만(滿)·한(漢) 거주지역을 구분했다. 이때 정양문(正陽門) 안쪽 내성(內城)지구는 만주 귀족의 거주지역으로 설정했으며, 외성(外城)에는 한족(漢族)만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내성지구는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되었고, 응복사(隆福寺) 주변으로 서적 시장이 발전했다.³³⁾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간기(刊記)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간본 『어제번역사서』는 응복사 거리의 '취진당'이라는 서방(書房)에서 간행했다. 이때 취진당은 응복사 서적 시장에 가장 이른 시기에 생긴 서방들 중 한 곳이다.

〔표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御製繙譯四書』의 篇題面 및 卷首面



33)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195쪽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御製繙譯四書 ᄒᄒᄒ ᄒ ᄒᄒᄒᄒ ᄒᄒᄒᄒᄒᄒᄒᄒᄒ ᄒᄒᄒᄒ ᄒᄒᄒᄒᄒ han i araha ubaliyambuha duin bithe • 京都隆福寺東口內路南 聚珍堂梓杆 ᄒᄒᄒᄒ ᄒᄒ ᄒᄒ ᄒᄒ ᄒᄒᄒ ᄒᄒᄒ ᄒᄒ ᄒᄒᄒᄒ ᄒᄒ ᄒᄒ ᄒᄒᄒᄒ ᄒᄒᄒᄒ ᄒᄒ ᄒᄒᄒᄒ gieng do rung pu se dong gu ni ro nan giging dang dzi ha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光緒十四年五月重刊 ᄒᄒᄒᄒᄒᄒᄒ ᄒᄒᄒᄒ ᄒ ᄒᄒᄒᄒ ᄒᄒᄒᄒᄒᄒ ᄒᄒᄒᄒᄒ ᄒᄒᄒᄒ ᄒᄒᄒᄒᄒ ᄒᄒᄒᄒᄒᄒᄒ badarangga doro i juwan duici sunja biyai dasame folo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序: 乾隆20(1755) • 版心 하단에 ‘聚珍堂’이라 적혀 있음.
---	---	--

이 판본에는 특별한 중간 서문(重刊 序文)이 덧붙여 있지는 않고 1755년 건륭제의 어제서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 『청실록』의 1856년(함풍6) 기사에 만한합벽 『흠정번역사서(欽定繙譯四書)』가 완성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강희 연간 복달예(福達禮)가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신어(新語)가 중간본에는 반영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1888년 취진당에서 중간된 『어제번역사서』 역시 19세기 변화한 만주어를 새롭게 반영하여 출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18세기까지는 사서 번역 및 간행이 조정의 주도로 진행됐던 데 비해,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판본이다.

한편, 이 『어제번역사서』는 규장각 일사문고(一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일사문고는 국어학자인 일사 방중현(方鍾鉉, 1905~1952) 선생이 개인 소장했던 자료를 1952년 서울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³⁴⁾ 일사

선생이 방대한 고서(古書) 수집가였던 점과, 19세기 말 청조의 서적이 활발히 조선으로 유입되었던 시대적 정황을 아울러 감안할 때 취진당본 『어제번역사서』가 일사문고에 소장된 경위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볼 수 있겠다.

3. 결론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 4종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상세한 서지사항·유입 경위 및 특징적 면모를 고찰했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청조 만한합벽 사서가 제작되고 유통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보았다. 청은 만주어·한어·몽골어·티베트어 등의 언어를 통용하는 다중언어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한족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 만주족 관료에 대한 한문(漢文)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며 『청실록(淸實錄)』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하는 작업 역시 청 초기부터 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만주어로 번역된 『번역사서』를 대상으로 삼아 번역고시(翻譯考試)를 치렀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정잡록(嘯亭雜錄)』 「번서방(翻書房)」 조를 통해서도 한적(漢籍)을 만문(滿文)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아문(衙門)인 번서방이 존재했던 것을 파악했다.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한 경서(經書)가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672년(강희11)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복달예(福達禮)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만문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나아가 완성된 형태의

34) 이호권, 「一簣 方鍾鉉 선생과 國語史 자료」,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참조.

번역사서를 황제에게 올린 기록은, 1751년(건륭16)과 1856年(咸豐6)에 보였다. 특히, 1856년 완성된 만한합벽 『흠정번역사서·오경·통감(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의 경우 강희 연간에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만주신어(滿洲新語) 및 대음절자(對音切字)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해보았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만한합벽 사서 중 국내소장본 4종의 상세한 서지사항과 조선 유입 경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이때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1冊인 ‘大學 全’의 표지에 써있는 ‘廿四品詩菴藏’이라는 기록과, 6冊인 ‘孟子 坤’ 마지막 면의 ‘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라는 기록에 주목했다. ‘시암(詩菴)’은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호(號)이었고,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을 널리 종합하고, 정자와 주자를 배반하지 말라[博綜馬鄭, 勿畔程朱.]’는 문구는 김정희와 교유가 깊었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의 한송(漢宋) 겸채(兼采)론을 드러낸다. 또한 각 책(冊)의 표지 서체도 모두 김정희의 것으로 추측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그 체제가 동일하나, 표지의 안쪽 면에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서등록번호(朝鮮總督府圖書館 圖書登錄番號)’가 찍혀있고 권수면(卷首面)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붙어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운영 시기인 1923년 개관 이후 입수된 것이라 판단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

熏)의 『사서집주』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오른쪽에 한문을 병기한 체제이다. 1책인 『대학집주』의 표지 안쪽 편제면(篇題面)에는 ‘도광(道光) 무술년(1838) 가을, 중간(重刊)하고 교정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북경의 유리창 병울당(炳蔚堂)의 주씨(朱氏) 장판.(道光戊戌秋月, 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炳蔚堂, 朱氏藏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혀 있었다. 또한 편제면의 ‘매 부는 문은(紋銀) 4냥을 금액으로 정한다[每部紋銀肆兩整]’라고 기입된 것으로 보아, 병울당에서 이 책에 4냥의 금액을 매겨 판매했던 정황을 짐작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었다. 간기를 통해 이 판본은 만주족의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된 용복사(隆福寺) 거리 서적 시장이 가장 이른 시기 생긴 서방(書房)인 ‘취진당(聚珍堂)’에서 간행했음을 파악했다. 18세기까지는 사서 번역 및 간행이 청조의 주도로 진행됐던 데 비해,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판본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경서 연구의 새로운 한 방식과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청대의 ‘만문 번역본 경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 청대에 국가 차원에서 경서를 만역하는 일에 주력했으며 청초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발행한 여러 번역 경서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청대의 경학 관련 여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지해야 할 바이다.

〈참고문헌〉

- 『(滿漢對譯本)四書集註』,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목판본.
『嘯亭雜錄』, 文淵閣四庫全書本.
- 이은상,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이미지 제국』, 산지니, 2021.
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저, 양희웅 역,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 김동소,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에 대하여」,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1)』, 지식과 교양, 2021.
김주원·정제문·고동호, 「滿文 詩經의 翻譯 樣相 研究」, 『알타이학보』 19, 한국알타이학회, 2009.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송강호, 「만문 書經「洪範」역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81, 문헌과해석사, 2017.
양원석, 「翁方綱의 詩經學-‘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여지숙·오동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이호권, 「一簣 方鍾鉉 선생과 國語史 자료」,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金華, 「以『詩經』爲例的滿譯漢籍文獻編目研究」, 『圖書館學刊』, 2021.
石文蘊, 「淺論『詩經』滿譯本中的疊詞翻譯策略」, 『民族翻譯』, 2022.
門議焯, 「武英殿刻本滿譯『詩經』的語言特点研究」, 中央民族大學, 2019.

- 王碩, 「清中叶以降儒學典籍滿譯研究」, 東北師範大學, 2021.
- 王敵非, 「滿譯“何陋之有”相關詞語用法研究」, 『滿語研究』, 2011.
- _____, 「滿譯『左傳』詞語研究-以『鄭伯克段于鄆』為例」, 『滿語研究』, 2012a.
- _____, 「民族文化在文學翻譯中的體現-以滿譯『詩經·關雎』為例」, 『黑龍江民族叢刊』, 2012b.
- 季永海, 「清代滿譯漢籍研究」, 『民族翻譯』, 2009.
- P. G. von Mollendorff,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2.

A Study on Qing Dynasty's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Focusing on 4 Species in Domestic Collection

Choi, da 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production, detailed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targeting domestic collections among Qing dynasty's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Qingsillok清實錄』,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inuous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scriptures into Manchu from the early Qing period. Among the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published at this time, the four types introduced into Korea each have their own distinctive features.

First,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is the first edition of 『Eojaebeonyeoksaseo御製繙繹四書』 published in 1755(乾隆20). In the case of the Korea University collection, there is a record that it was owned by 'Siam(詩菴)', the surname of Kim Jeong-hee (金正喜). It is possible to confirm traces of Kim Jeong-hee as there are written phrases that reveal the philosophy of Ong bang-gang(翁方綱),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Kim Jeong-hee.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ojaebeonyeoksaseo御製繙繹四書』 can be judged to have been obtained after 1923 by confirming that there is a claim number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 Currently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Ph.D. in Classics Translations
/ E-mail: choi_dajeong@naver.com

Next, the collec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aseojipju 四書集註』, was published in 1838 at the 'Byeonguldang(炳蔚堂)' in Yourichang(琉璃廠), Beijing. And it is understood that each volume was sold for 4 pieces of silver(紋銀).

Finally, the collection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ojaebeonyeoksaseo 御製繙譯四書』 is a mid-length version in 1888 of what was published in the year of Qianlong(乾隆). This was published in 'Chwijindang (聚珍堂)' in the book market on the street of Yongboksa(隆福寺) Temple, which was formed as a new commercial district for the Manchus. This is a valuable edition in that it shows the fact that the Manchu translation of four books was actively carried out in the 19th century in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Eojaebeonyeoksaseo』, Manchu, Kim Jeong-hee, Byeonguldang, Chwijindang

논문접수일: 2022. 11. 13,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